



설비의 당면과제 해결 위해 관련단체가 공동노력 해야



이진호 _ 대림산업(주) 건축사업본부 상무/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회의 회장

전국 설비건설업체의 권익옹호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발족된 이래 국내 설비업계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원사의 건전한 발전과 기술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이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협회는 전국 시·도회를 꾸준히 확장시켜 타 직종의 어느 협회에 못지 않은 조직과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 여러분

금년의 건설환경은 우선 주택시장 안정 측면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규제, 주택거래 신고제,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강화와 재건축 사업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설비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층간 소음규제,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 및 소방법 강화 등 어느 때보다도 설비관련 업무에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설비분야의 역할 재정립과 설비인의 위상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비분야는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관련 분야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설비발전을 위한 투자나 인재육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절실히 인정하고 있으나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것



이 현실입니다.

많은 설비인들이 거론하고 있는 우리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설비의 중요성에 비추어 건설시장에서 설비기술인들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설비분야라는 장르는 비록 건축에 비하여 규모는 적을지 몰라도 무척 다양한 분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20년 전의 설비를 생각해 보시면 관련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많은 관련학회나 협회가 나름대로 연구활동과 사업을 하고 있고 종합건설회사의 설비 책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도 같은 맥락에서 설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좀더 대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비의 당면과제를 공감하고 협력하여 공동 노력하는 협회 및 학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도 기존의 단순한 친선모임에서 벗어나 설비분야의 당면과제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설비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로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 여러분!

종합건설사의 설비를 담당하는 설비인의 한사람으로서 기계설비나 가스업을 하시는 설비협회 회원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설비협회 회원분들의 발전이 곧 설비업계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고 미천하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금년도 숙원사업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